

SM, 금호 가동중지 82달러 폭락!

FOB Korea 685-690달러 형성 ... 유도품 플랜트 가동중지 잇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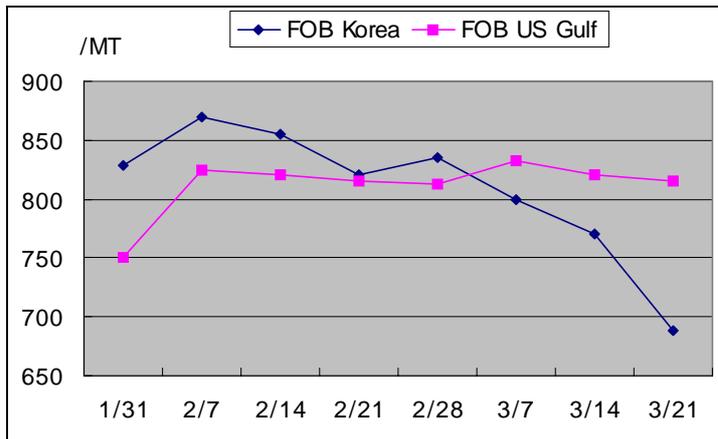
SM 가격은 3월21일 FOB Korea 톤당 685-690달러로 82달러 폭락했다.

아시아 SM 시장은 나프타 가격이 C&F Japan 톤당 272.50-277.25달러로 톤당 평균 73달러 폭락하고, 벤젠 가격마저 3월21일 FOB Korea 톤당 435-445달러로 50달러 폭락하면서 동반 폭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여기에 금호석유화학이 울산 소재 HIPS 2기 7만5000톤 플랜트 가동을 중지해 SM 가격폭락을 이끌었다. 금호석유화학은 PS 플랜트를 한달간 예정으로 가동중지했지만 수요가 회복되고 원료가격이 하락해 채산성이 회복되면 한달이 가지 전이라도 재가동할 방침이다.

아시아에서는 금호 뿐만 아니라 다른 유도제품 생산기업들도 PS, EPS, ABS, UPR 플랜트 가동을 중지하거나 가동률을 낮추고 있어 SM 시장에 큰 타격이 되고 있다.

SM 가격추이



중국의 SM rkrur도 7300元으로 하락하면서 수입가격 기준으로 CFR 700달러를 형성해 아시아 가격하락을 부채질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SM 가격은 3월21일 FOB US Gulf 파운드당 36.00-38.00센트로 톤당 평균 816달러를 형성해 5달러 하락에 그쳤으나, 유럽가격은 FOB Rotterdam 톤당 720-740달러로 30달러 급락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3/03/26>